1. 수다영어 학원장 세미나 PT

영국 유력 신문, 파이낸셜타임지(2014년 6월 19일)의 기사를 인용하면 “한국의 영어 사교육비가 6조원에 달하지만 영어 구사에 자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기사와 함께 어디를 가봐도 많은 영어 학원을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영어 시장 규모는 엄청납니다.

사교육 죽이기 정부의 정책, 불경기, 저출산에 의한 원생의 감소 등… 학원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원장님들의 하소연이 많지만, 그래도 한국의 영어 시장은 아직 큰 편이고, 다른 업종에 비해 힘들지 않고, 아직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트니영어는 미국에서 10년, 한국에서 10년,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 매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작년에는 모바일/탭 앱버전을 개발하여 오늘 원장님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개발을 시도할 수 없으나, 위트니영어는 자체 컨텐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20억 규모의 지상파 TV 광고 등 대규모 마켓팅 광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가 아닌 20억 정도 투자가 되는 대규모의 마켓팅 광고의 집행은 과연 투자성이 있는 사업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원장님들의 반응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수다영어

어떻게 듣고 말하는지

어떻게 언어가 습득되는지

언어와 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뇌를 움직이는 과학화된 소리 영어 학습 프로그램

위트니영어가 앞으로는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한마디로 우리 프로그램의 특징을 묘사하기 쉬운 이름으로, 수다영어로 변경됩니다.

20년간 개발되어온 위트니영어. 위트니영어가 무엇이 좋지요?

참 좋은 데 딱 뭐라고 설명하기에 저희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하였습니다. (책을 보여준다)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최종근교수가 미국 MIT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과정에서 느낀 - 한국의 잘 못된 영어 교육과, 언어와 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집필한 “뇌 속에 팍 꽂히는 소리단어 보카팟”이라는 서적. 이 서적을 읽다 보면 수다영어가 바로 박사 교수가 원했던 바로 그 프로그램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듣고 말하는지

어떻게 언어가 습득되는지

언어와 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뇌를 움직이는 과학화된 소리 영어 학습 프로그램

수다영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당신의 영어 수준은?

취학 전 아동 수준

글자를 아직 습득하지 않은 상태로 모든 단어를 소리로만 습득한다. 약 1,000개의 생활단어 구사가 가능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수준이다. 문자가 아닌 말로는 어떤 교육도 가능하다.

원장님의 영어 수준은 어떠하십니까?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취학 전 아동 수준이십니까?

4. 초등학교 아동 수준
글자를 알고 사용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는 단어 수준이 2,000~3,000개 정도다. 그러나 신문을 원활하게 읽거나 뉴스를 듣고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5. 중학교 학생 수준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5,000개 정도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없지만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하거나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6. 고등학교 학생 수준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10,000개 정도에 달한다. 신문과 뉴스를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사회인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언어능력을 갖고 있다.

7. 읽기는 중학생 수준인데

듣기는 취학전 아동 수준이고,

말하기는 취학전 아동 이하의 수준이라면

당신의 영어 교육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영어 수준은 거의가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 언어는 어떻게 습득되는가

아기의 맘마 – 듣기와 기억하기

아기가 배고파 울 때 누군가 다가와서 ‘맘마’라는 소리를 내며(듣기) 무언가 맛있는 것을 입에 넣어주던 것으로 기억하게 된 후

언어가 어떻게 습득되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아기가 배고파 울 때 누군가 다가와서 ‘맘마’라는 소리를 내며(듣기) 무언가 맛있는 것을 입에 넣어주던 것으로 기억하게 된 후

9. 아기의 맘마 – 알아 듣기

‘맘마’라는 소리를 들으면 먹는 것의 개념으로 알아듣고.

10. 아기의 맘마 – 말하기

배고플 때는 울기만 하지 않고 ‘맘마’라는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며 말하기가 됩니다

11. 언어는 소리로 단어 네트워크를 쌓아간다

인간은 태어나 자라면서 소리를 듣고, 소리의 개념과 이미지를 뇌 속에 단어 네트워크로 쌓아가면서 자기의 언어, 모국어가 형성된다

12. 뇌 속에 저장된 단어는 소리로 뇌를 자극하여 단어 이미지를 기억해낸다

뇌에 저장된 하나의 단어 이미지를 뇌에서 파악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0.3초고, 하나의 단어를 소리 내는 데 0.3초가 걸립니다

13. 듣는 것은

소리를 듣고 똑같은 소리의 이미지를 자신의 뇌 기억에서 꺼내서 받아보는 것이고

14. 말하는 것은

뇌 속의 이미지를 소리로 꺼내서 던지는 것입니다

15. 듣고 말하는 것은 소리로 뇌를 자극하여 순식간에 일어나는 뇌의 운동이고

16. 인간은 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흉내를 내는 타고난 생물학적 능력이 있는 데, 그것이 바로 언어능력입니다

## 17. 잘못된 영어 공부의 핵심은 바로 ‘소리가 빠진 영어공부’다.

## 18. 영어공부는 운동학습인가 사고학습인가?

19. 운동적 운동학습

반응시간이 3초 이하면서 소뇌와 대뇌의 네트워크 작업인 것들

컴퓨터 키보드 치기, 피아노 치기,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대부분의 스포츠

20. 운동적 사고학습

반응시간이 3초 이하이면서 대뇌만의 작업인 것들

암산 훈련으로 덧셈 뺄셈 계산을 빠르게 해내는 것, 짧은 기억 학습, 순간 기억 학습 등

21. 사고적 사고학습

반응시간이 3초를 초과하고 대뇌만의 작업인 것들

여러 개의 개념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고 기억하는 등 대부분의 학교 공부

22. 책에 쓰인 문장을 생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기억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기억한 대로 말하면 그것이 말하는 학습이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23. 말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문장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말할 시간은 한참 지나가 버린다.

24. 말을 듣는다는 것이 들은 단어의 스펠을 떠올리고 있다. 들을 말은 이미 한참 지나갔고, 들은 소리도 공중에 흩어져버린 뒤다.

25. 한마디도 못 듣고, 한마디도 못한다. 따라서 머릿속에 생각은 많아도 말은 없다. 생각은 많지만 몸이, 입이, 혀가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이다.

26. 영어학습은 순식간에 소리를 듣고 내는 운동학습인데 사고학습을 하려고 한다.

27. 수영과 자전거 같은 운동학습은 저절로 몸에 습득되는 것처럼, 영어학습도 소리로 움직이는 운동학습으로 저절로 습득되게 된다

28.모국어의 습득 (소리-이미지-개념)글자를 배우기 전에는 소리-이미지-개념들로 뇌 속에 저장하게 된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국어 – 어떻게 습득되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글자를 배우지 않아도 바로 소리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단어의 소리에 해당하는 이미지와 개념들을 뇌 속에 저장하고, 소리-이미지-개념의 단어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29. 뇌속에 기억되는 소리단어의 모습

뇌 속에 저장된 소리 단어의 모습입니다.

30. 모국어의 습득 (소리-이미지-개념)학교에 들어간 후 1~2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글을 읽고 쓰면서 단어 네트워크 동체에 새로운 글자단어가 추가된다.

31. 뇌 속에 기억되는 단어의 모습 단어들은 소리단어, 개념, 이미지, 글자단어들로 뇌 속에 저장되는 곳이 각각 다르면서

소리단어 네트워크에 글자가 추가됩니다

32.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저장되는 단어들

같은 단어임에도 한 종류의 장미만을 본 사람과 여러 종류의 장미를 본 사람의 장미에 대해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24-2)

같은 단어임에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종류의 장미만을 본 사람과 여러 종류의 장미를 본 사람의 장미에 대해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3. 뇌 속의 언어들 - 소리를 통하여 꺼내온다 언어는 소리+이미지+개념으로 뇌 속에 기억되고, 뇌 속에 기억된 것들은 소리를 이용해 저장된 모든 장면을 검색하고, 꺼내고, 배열하고, 정리한다.

34. 서양 사람의 외국어 습득 기간서양 사람들의 외국어 습득 소요시간은 평균 2∼3년 (한국어를 유치원 아이 수준만큼) 26-2

서양 사람들이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어을 유치원 아이 수준만큼 하는 데 평균 2~3년 소요된다고 합니다.

10년을 배우고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2세 때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해 유치원에 갈 5세 무렵이면 누구나 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말을 배우는 데는 2∼3년이면 충분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 정도 기간 안에 누구나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 어떻게 짧은 기간 내에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을까? 27-1

36. 모국어 습득 과정을 통해 이미 모국어 단어 네트워크가 쌓여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다

27-2

37. 단지 모국어를 습득할 때 형성되었던 ‘이미지-개념’에 외국어 소리와 글자만 추가한다

27-3

38. 이미 저장된 모국어 단어 네트워크에 추가된 외국어

외국어 글자를 배우지 않아도, 외국어 소리만을 모국어 단어 네트워크 속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28-5

39. 이미 저장된 모국어 단어 네트워크에 추가된 외국어

추후 외국어 글자를 배우면 글자 따로 모국어 네트워크에 저장됩니다.

모국어 단어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면 영어를 배울 때 글자 없이 소리만으로 소리영어를 배울 수 있고, 또한 소리 없이도 영어 글자를 배울 수 있습니다.

40. 들리고 안 들리는 이유

한국인이 모국어의 말을 배워가는 유아기 때 (1)

**“아가 예쁘다”라는 말을 엄마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29-3**

**어떻게 들리고 왜 안 들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가 예쁘다”라는 말을 엄마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뇌 속으로 소리가 전달됩니다.** 소리를 들으면 뇌 속에 소리의 불이 켜집니다.

41. 소리는 들어도 그 소리의 뜻은 모른다. 소리의 불은 켜져도 이미지와 개념의 불이 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0-1

소리는 들어도 아가, 예쁘다라는 단어의 네트워크가 형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의 불은 켜져도 이미지와 개념의 불이 켜지지 않아 뜻이 뭔지 알아 들을 수 없습니다.

42. 소리는 들어도 그 소리의 뜻은 모른다. 소리의 불은 켜져도 이미지와 개념의 불이 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마부위침 30-2

“마부위침” 마부위침이란 뜻을 아십니까?

43. 고사성어로서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뜻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한다라는 뜻”이다 30-3

고사성어로서 >>>>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원장님의 단어 네트워크에 마부위침이란 단어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44. 한국어임에도 소리는 듣고 따라 할 수 있으나 그 뜻을 모르면 소리의 불은 켜져도 이미지와 개념의 불이 켜지지 않아 뜻을 모른다 30-4

한국어임에도 소리는 듣고 따라 할 수 있으나 그 뜻을 모르면 소리의 불은 켜져도 이미지와 개념의 불이 켜지지 않아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45. 한국인이 모국어의 말을 배워가는 유아기 때 (2)

 **“아가 예쁘다”**라는 엄마의 말에서 ‘아가’라는 소리단어 하나만 알아듣고 ‘예쁘다’ 라는 소리단어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를 때. 31-2

‘아가’라는 소리는 이미지와 개념의 전구에 불이 켜지면서 알아듣지만, ‘예쁘다’의 소리는 들려도 ‘예쁘다’의 뜻은 모르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46. 한국인이 모국어의 말을 배워가는 유아기 때 (3)

그림과 같이 ‘아가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두 단어 모두 이미지와 개념의 전구에 불이 켜지면서 그 말뜻을 알아듣는 상태입니다. 글자는 아직 안 배웠으므로 글자 전구는 불이 안 켜진 상태입니다. 32-2

46. 한국인이 학교에서 모국어의 글자를 배우는 시기

아기가 커서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글을 배웠습니다.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읽을 줄 아는 상태에서 아이가 엄마로부터 두 단어로 이루어진 **“아가 예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가’와 ‘예쁘다’의 두 단어 모두 이미지와 개념의 전구에 불이 켜지고, 글자의 전구에도 불이 켜진다. 완전 소통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33-2

## 47. 처음 듣는 영어 단어 34-2

Pretty girl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뇌 속 상태는 영어단어 소리에만 불이 켜지게 됩니다.

단어의 소리는 들리지만 그 뜻과 스펠은 모른다. 영어의 소리는 분별하여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그 소리가 한국어의 네트워크 동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영어단어의 소리가 한국어 네트워크에 동체화되어 기억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 48. 글자로 익힌 영어 단어 35-2

영어의 소리를 배워서 익히지 않고, 영어의 글자만 익혀서 모국어 네트워크 동체에 추가하는 경우. 영어 소리만 제외하고 모두 불이 켜집니다. 부단히 노력한 사고학습의 결과이지만 알아듣지 못한다. 이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외국문자를 배우는 꼴이다.

## 49. 소리로 익힌 영어 단어

모국어 네트워크 동체에 영어의 소리가 네트워크로 추가된 경우

완전히 말을 알아듣고 또 할 줄 안다.

50. 한국 사람이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하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해도 글자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37

51. 영어로 말은 못하고 못 들어도 글의 독해는 가능하다니 그 효율성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 38

52. 대한민국의 영어교육은

듣기 말하기의 뇌의 운동능력이 아직 부족한 취학 전의 아기에게 문법, 독해, 작문 등의 복잡한 사고능력을 주입시키는 영어 교육을 진행시키고 있다 40-2

## 53. 대한민국의 토플 평균 성적은 41-2

## 그 결과 대한민국의 토플 평균 성적은 160개국 가운데 듣기와 말하기 성적은 최하위권인 실정이다.

54. 소리를 구할 수도 없었고, 소리를 담을 녹음기도 없었고, 주변에 소리를 들려줄 원어민 교사도 없었고, 오직 학교 선생님과 자기 자신, 사전과 책으로만 공부해야 했던 시절

43-2

55. 무인자동차가 개발되는 시대, 바둑에는 컴퓨터가 프로기사를 이기는 시대

소리와 영상을 모두 기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즘, IT 기술과의 접목으로 운동적 학습에 맞는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시대 44-3

56. 어떻게 듣고 말하는지

어떻게 언어가 습득되는지

언어와 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뇌를 움직이는 과학화된 획기적인 소리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 수다영어 45-3

57. 듣고 따라 하십시오 (한국말 녹음 듣기) 46-1

58. 세종 대왕은 ~ 46-2

59. 모국어는 쉽게 듣고 따라 할 수 있다. 46-3

60. 듣고 따라 하십시오 (긴영어문장 녹음 듣기) 47-1

61. My mom ~ 47-2

62. 모국어는 길어도 쉬운데 조금 긴 문장의 영어는 따라 하기는 쉽지 않다. 왜 일까? 47-3

63. 듣고 따라 하십시오 (쉬운영어 녹음 듣기) 48-1

64. 우리가 많이 기억한 영어문장은 길어도 따라하기가 쉽다.

48-4

65. 문장의 단어들이 모국어 단어 네트워크에 영어소리가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48-5

66. 듣고 말하기의 0.3초의 법칙

소리를 듣고 0.3초 내에 뇌에 저장된 소리를 찾고

0.3초 내에 소리를 말한다.

이것이 대화다 49-2

수영을 가르치는데 수영 코치가 팔을 움직이며 “이렇게 하면 버터플라이입니다. 알겠지요?”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음, 버터플라이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며 큰 소리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물 밖에서 코치가 몇 번을 물어도 학생들은 똑같이 대답하고, 수영 코치를 따라 버터플라이 동작을 그럭저럭 흉내도 냅니다.
자신이 잘 가르쳤다고 생각한 코치는 이제 의기양양하게 학생들을 데리고 먼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깊은 바다에 들어가게 하고는 “자! 멋진 버터플라이 동작으로 여기까지 헤엄쳐 오세요!”라고 지시한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버터플라이는 고사하고 모두 물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학교 성적 때문에 시험위주로 가르칠 수 밖에 없어요.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67. 수다영어!!!

소리로 듣고 말하기는 수다에서 시작된다 49-3

68. 뇌를 자극하는 0.3초의 법칙

0.3초내 소리로 뇌를 자극시키는 연습 50

69. 문장을 보지 않고, 문장의 소리를 듣고 따라 하면 0.3초 내 듣고 말하기가 된다. 영어가 되는 것이다. 51-1

70. 문장을 보고 듣는 순간 귀로 듣기가 아닌 눈으로 읽기가 되기 때문이고, 소리 듣기 연습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51-2

듣기 연습을 해도 문장을 보고 들으면 귀로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기가 되기때문에 소리 듣기 학습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다영어는 다릅니다.

71. 문장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듣기 훈련이 되지 않을 때는 321 학습법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72. 음성인식기능이 작동하여 어떤 발음으로 연습 하였는지 데이터로 저장되어 선생님의 관리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53-2

73. Listen to the Word

문장을 듣고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의 이미지 찾기 54-2

74. 이미 들었던 문장일지라도 계속 집중하여 듣게 하고, 문장내의 단어와 일치되는 단어 이미지 찾기를 통하여 뇌 속에 저장된 자기의 모국어 단어 네트워크에 영어 소리 접목 효과를 높인다 55-2

75. 문장 말하기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기 퀴즈가 진행된다.

56-2

76. Listen to the Word with Your Voice

문장말하기 퀴즈에서 저장된 학습자의 녹음된 문장으로 Listen to the Word가 진행된다. 자기의 모국어 단어 네트워크에 영어 소리 접목 효과를 높이고 선생님의 말하기 관리가 쉽게 이루어진다. 58-2

77. Keep on Listening

원어민 문장 > 한글번역 문장 > 원어민 문장 2 > 원어민 문장 3 59-2

원어민 문장듣기 > 한글문장듣기 > 원어민 문장듣기

78. 뇌를 자극시키는 다양한 원어민의 발음과 한글 문장과 연결하여 수시로 듣는 훈련 /

한글과 영어의 문장 소리를 연결시켜 듣게 함으로 자기의 모국어 단어 네트워크에 영어 소리 접목 효과를 높인다

레슨 몇번에서 몇번까지 등 옵션을 선택하여 듣기 학습이 진행되고, 뇌를 자극 ~ 60-2

79. Keep on Talking

한글 문장을 들려주고 영어 문장 말하기. 61-2

80. 음성 인식 기능이 작동되어 올바른 발음으로 말했는 지 확인하며 말하기 연습을 가능하게 한다 62

81. 수다영어 단어학습

문장 학습 전에 문장에 사용된 단어들을 학습한다 63-2

82. Listen and Repeat

음성 인식 및 단어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서 자기의 모국어 단어 네트워크에 영어 소리 접목 효과를 높인다 65-3

83. 기타 다른 여러 단어 학습법을 통하여 많은 듣기와 말하기 연습이 진행된다. 66

84.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해답을 찾는 방법이다. 67

85. 원어민 교사 없이 한국인 영어 교사만으로도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가르치는 쪽이나 배우는 쪽에서나 똑같이,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모두 줄이는 해답이다. 68-2

미국에 간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 공부도 하고 수시로 원어민과 많은 수다를 떨어야 합니다.

86. 영어를 습득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 69-1

87. 수다영어는 소리를 통한 단어습득방법과 특허받은 듣기학습법으로 하루 한 시간 훈련으로 월 400~ 500개의 단어를 완전한 소리로의 기억이 가능하다. 69-3

88. 모국어로 한국어를 배운 아이가 6~7년 걸려서 습득한 2,000여 개의 소리단어를 외국어인 영어의 경우에는 시간을 압축하여 더 빨리 1년 내에 영어소리단어로 습득할 수 있다

70-2

89. 이미 잘 갖추어진 자기의 모국어 단어네트워크의 이미지와 개념에 영어 소리단어와 영어 글자단어만 추가해 새로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71-2

90. 수다영어는 보다 효과적으로 자기의 모국어 단어 네트워크에 영어소리 단어 접목을 시키고, 0.3초 내 뇌 속에 저장된 이미지를 소리로 꺼내기 훈련을 통하여 가장 빠른 영어가 습득되는 획기적인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다

72-3

91.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92.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93. 원어민과 수시로 수다하는 것처럼

94.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트를 통하여, 특허받은 듣기 학습법인 수다영어 입니다.

본사에서 모바일버전과 탭버전을 개발한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학생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원장님과 선생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지금부터 모바일버전을 이용하여 수시로 듣고 말하고, 그리고 잘 못해도 학생들과 같이 영어로 간단한 대화는 영어로 수업하는 학원 만들기.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런 변화가 원장님들에게 있을 때 20억을 마켓팅 비용에 투자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영어를 바꾸는 것입니다.